

경상북도 공립학교의 교가·교훈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

김은혜**·박은미***·박순란****·박효영*****

초 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 753개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753개 공립학교를 전수조사하여 교가·교훈 속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기준으로 맥락분석 및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교급에서는 ‘건아, 화랑’과 같은 남성 지칭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교유형별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여학교 교가·교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설립연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주로 200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가·교훈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가·교훈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성차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을 통한 일괄적 사업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학생, 동문회, 교직원, 학부모회 등의 합의 도출을 위한 학교별 교가·교훈 성차별적 요소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성차별적 요소와 인권침해 요소를 포함한 교가·교훈 수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주 구성원인 학생들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관점을 반영한 경상북도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교가, 교훈, 양성평등

* 본 연구는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수탁으로 인한 “경상북도 교가·교훈에 대한 특성
성별영향평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담연구원(grace0130@forwoman.or.kr)

*** 공동저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eumipark@forwoman.or.kr)

**** 공동저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담연구원(sujan0826@forwoman.or.kr)

***** 공동저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담연구원(hypark61@forwoman.or.kr)

I. 서론

학교 교가·교훈은 그 학교의 면학 정신과 교육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 소재지나 지역 특성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승윤희(2013: 691)는 교가를 학교 기풍과 건학정신을 발양하는 목적으로 학교 교육목표, 이상 및 특장(特長) 등이 나타나게 제정하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로 정의한다. 교가는 정기적 조회 시간, 입학식 및 졸업식 등 학교 주요 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교훈은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 및 생활지도 받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인격형성 속성이자 도덕적 생활규범으로 정의한다(이진석, 2011: 182). 즉 교가·교훈은 개별학교의 학생 생활규범, 교육목표와 특장(特長) 등의 교육이념을 반영하여 학생 생활 전반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김재인 외(2000: 344)에 따르면 교육법에 제시된 홍익인간, 민주주의 이념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이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제시되어 남녀에 따른 교육이념이 표면상 통합된 단일구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이념을 구성하는 개념들 속에 포함된 구체적 의미는 남녀에게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작용되고 있다.

개별학교의 목표가 현대적 인간상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표에 내재된 의미는 여학생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명시적인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평등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남녀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정도와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여학교의 교육목적에서는 현모양처와 부덕을 강화하여 가정 및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여성화’ 교육이 주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는 것이다(김재인 외, 2000: 345).

학교 교육이념은 교가·교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가·교훈은 학교 설립 시기에 제정되어 학교설립연도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돌순 외, 2020: 79). 전통적 가치관이 포함된 교가·교훈은 학생들에게 전통적 성역할과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교가·교훈 분석 사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인천광역시 제외) 초·중·고 1,016개를 표본추출하여 분석한 연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510개를 대상으로 한 백서가 있다(김돌순 외,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99개교 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분석 사업을 실시하였고 강원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637개교의 교가·교훈을 전문 수집·내용분석 하여 동문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회 등이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하여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단위(인천광역시 제외)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강원도 지역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한 것으로 경상북도 지역 교가·교훈의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학교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교가·교훈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23개 시·군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753개의 교가·교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는 국립 2개, 공립 753개, 사립 171개로 총 926개이다. 경상북도 내 국립 2개 학교는 국가에서 관리하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설립 및 경영하는 학교”로 교육청에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수정 권고하기 어려워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2023.03.26.). 한편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분석 결과와 사업 운영은 사립학교에도 양성평등한 교가·교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세대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교가·교훈의 의의

교가는 ‘학교에서 기풍을 발양할 목적으로 그 학교 정신, 이상, 특장(特長) 등이 나타나게 특별히 제정하여 학생들이 부르게 하는 노래’이다(이희승, 1986: 352; 승운희, 2013: 691에서 재인용). 교가는 학교 개교 당시 설립자나 교장이 작사하고 외부 도움을 통해 작곡하는 경우가 많다(권혜인·한용진, 2013: 131; 윤병화, 2011: 114-115).

이때 교가는 학교 교육 정신과 이상 등을 포함하며 학생들이 부르는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권혜인·한용진, 2013: 142). 따라서 교가 가사는 시대와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적 가치를 균형있게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 및 생활지도를 받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할 인격형성 속성이자 도덕적 생활규범이다(이진석, 2011: 182). 지봉환(2021: 235)에 따르면 교훈은 학생 개개인이 삶을 가꾸며 다듬는 데 필요한 덕목과 타인과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지녀야 할 덕목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교가·교훈은 학교 교육 정신과 교과, 생활지도 가운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어울리는 교육적 가치를 담는 것이다. 하지만 김돌순 외(2020: 4)는 학교 교가·교훈이 학교 설립 당시 시대상과 그 시대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교가·교훈은 학교 설립 시기에 제정되어 그 시대의 인재상을 반영한 전통적 성역할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설립연도가 오래된 교가·교훈이 현대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교가·교훈 분석사례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에 이르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가·교훈 선행연구는 김돌순 외(2020)의 전국단위(인천광역시 제외) 교가·교훈 분석이 있다. 이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포스트, 2021.04.15.), 강원도교육청(서울신문, 2022.01.07.)에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다시 쓰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들은 모두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기준을 제시하고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먼저 김돌순 외(2020)는 16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을 통해 총 1,016개 국·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교가·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교가·교훈 성차별성 분석 기준은 ‘특정 성 지칭, 성차별적/성편향성, 사회적 역할 및 해당 단어/표현 사용’이다. 학교 교가·교훈 분석 점검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세분된다. 첫째, 특정 성 지칭은 ① 남성 지칭 단어 사용(예: 남자/남성, 건아, 아들), ② 여성 지칭 단어 사용(예: 여자/여성, 꽃), ③ 성차별 요인 없음, ④ 남성/여성지칭 모두 사용이다.

둘째, 성차별적/성편향 단어 사용은 ① 남성 편향적 단어 사용(남성적/여성적 표현 등), ② 여성 편향적 단어 사용(예: 아름다움, 정숙, 순결 등), ③ 성차

별 요인 없음, ④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모두 사용이다.

셋째, 사회적 역할은 ① 성취지향적·활동적·주도적 단어 및 문구, ② 관계지향적·소극적·수동적 단어 및 문구, ③ 성차별 요인 없음, ④ ①,② 모두 사용된 경우이다. 김돌순 외(2020)는 사회적 역할을 교가에서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성공, 지도자, 미래에 두어졌다면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지식의 습득으로 인한 사회봉사와 배려는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분석하였고 태도/품성(예: 근면, 성실, 정직, 신의 등) 또는 지식이나 학습(예: 인재, 지능, 능력, 지혜 등)의 가치 단어는 남녀 모두에게 권장되는 단어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가·교훈은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건아/형제 등’의 남성 지칭 용어를 사용하여 성별 대표성에 불균형을 유발하거나, 남성 지칭 표현이 ‘힘차게/굳센 힘 길러 등’의 성 편향적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가·교훈은 여학교에서 ‘여성/여중/꽃(봉오리)/목련 꽃 등’의 여성 지칭 용어가 ‘탐스러운/담백한 향기/순결 등’의 성 편향적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학교에서는 ‘아름다운/아름답게/아름다워라’, ‘착한/착하고/착하게’ 등의 성 편향적 단어가 교가·교훈에 사용되어 ‘여성=미=가꿈’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하였다. 한편 남학교에서는 ‘건아/형제들 등’이 ‘씩씩한’과 대구되는 표현, ‘정기서린 하늘을 보라, 새 시대의 개척자 등’의 남성성 강조 표현이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교가·교훈은 여학교에서 ‘참되고 슬기로운 여성/착한 딸/어진 어머니 등’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여성 역할과 태도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을 ‘꽃/향기 등’으로 표현하여 전통적 여성다움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공학에서는 ‘형제들/아들/건아/화랑의 후예 등’ 남성 지칭 표현이 사용되었고 남학교는 ‘기백/개척의 정신 등’ 남성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남성성 강조 표현이 사용되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2020)은 2019년 관내 초·중·고등학교 510개교를 전수 조사하여 교가·교훈의 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9년에 실시한 교가·교훈 분석 기준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표현이 있는가?’와 ‘성차별적 표현이 있는가?’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가는 ‘희망의 등불’, ‘셋별’, ‘새싹’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몇몇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되었다. 남녀공학임에도 ‘건아들’, ‘바다의 아들’, ‘늠름함(생김새나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함)’의 남성을 대표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씩씩하다’와 ‘슬기롭다’의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한편 초등학교 교훈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교가는 여학교에서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남학교에서는 ‘씩씩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특정 여학교는 수동적인 성별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남학교는 ‘건강하고, 씩씩한, 강한’ 진취적이고 확장된 남성성 강조 표현이 사용되었다. 중학교 교훈에서는 일부 여학교에서 ‘정숙, 경애, 고운 심성, 예쁜 행동’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하거나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고등학교 교가에서는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표현, ‘순결’, ‘정숙한’, ‘향기’ 등의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남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건아’, ‘역군’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고등학교 교훈은 여학교에서 ‘정숙, 정성, 정행, 경애, 정심, 아름답게’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강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남학교는 ‘신의’와 같은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은 초·중·고등학교 99개교의 교훈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학교 문화를 진단하였다. 학교 교훈은 공통적으로 인성과 배움 등의 성장과 관련된 표현, ‘행복, 꿈, 사랑, 즐겁게 아름답게 등’의 감성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특히 성실과 근면 등의 개인적 요소 55개와 협력 및 배려 등 공동체적 요소 43개로 구분되는 인성에 대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99개교 학교 교훈은 학생들이 공동체와 함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양성평등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교육청(2021)은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637개교의 교가·교훈을 전문 수집·내용분석 하였으며 동문회, 학부 모회, 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회 등이 자율적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교육청은 ‘역군’, ‘건아’, ‘일꾼’을 ‘희망’, ‘새싹’으로, ‘아들딸’을 ‘우리들’, ‘쓸모있는’을 ‘행복한’으로 성차별적 요소들을 양성평등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 사업은 교가·교훈의 분석이 전국단위(인천광역시 제외),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강원도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보수성이 강한 경상북도 지역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업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 나타난 교가·교훈의 성차별성을 파악하여 자체 교가·교훈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교가·교훈 분석사례를 토대로 교가·교훈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교가·교훈 분석 기준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언어표현 등 2개이다. 교가는 문맥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성역할 고정관념은 ‘① 남성/여성다움 편견, ② 전통적 인재상, ③ 특정 성 지칭 표현’으로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①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사용, ②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단어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생물학적 성에 영향받은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따른 사고와 정서 및 행동 양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구조화된 신념이다(한정희·허무열·박진희, 2021: 129).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을 평가할 때 개인적 특성/능력과 상관없이 생물학적 성에만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김동일, 1999; 김복환, 2013: 27에서 재인용). 이현주(2012: 396)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남성성과 연관된 남성 역할 고정관념 및 여성성과 연관된 여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분류한다. 여성가족부(2023: 71-72)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과 ② ‘여성다움’ 및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보조자, 질문자, 소비자 등으로 남성의 역할을 의사결정자, 답변자, 생산자 등으로 표현하거나 직업, 취미, 지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다움’ 및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에서는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태도·활동 및 행동,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성별 집단으로 범주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별 범주에 대한 역할 기대와 신념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상수 외, 2007: 18).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내적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장래에 갖게 될 직업적 대안 중에서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Beuf, 1974; 김복환, 2013: 27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여성다움 편견, 전통적 인재상, 특정 성 지칭 표현으로 나뉜다. 첫째, 남성/여성다움 편견은 남성/여성을 평가할 때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여성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인재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전통적 인재상을 표현한 것으로 남성/

여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특정 성 지칭 표현(남성 총칭어, 여성 총칭어)은 남성이나 여성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성별 집단을 범주화하여 고정관념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성차별적 언어표현

차별적 언어표현은 한 사회, 개인 혹은 특정 집단과 그에 대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의미한다(박혜경 2009: 25). 또한 언어 차별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비객관적 사실로 누군가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동근, 2010: 62). 조태린(2006)의 연구는 차별적 언어표현을 성, 신체, 인종 및 국적, 지역, 직업 및 사회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양성 불평등한 차별적 언어표현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나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것, 여성의 성적 혹은 신체적 측면을 이용하는 것,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 여성 비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안상수 외(2007: 25)는 성차별적 언어표현에 대해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고정관념적인 속성 강조, 선정적인 표현 및 특정 성 비하 등의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3: 72)는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① 여성에 대해 꽃, 미망인, 출가외인 등으로 비유·묘사하는 표현, ② 처녀작(첫작품), 남성적/여성적, ‘김여사’ 등처럼 불필요하게 성별에 따른 구분과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 ③ 여성은 존댓말, 남성은 반말을 사용하는 등 대화에서 동등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사용,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단어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사용은 능률함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남성적/여성적 표현 등이다(김돌순 외, 2020: 87). 둘째,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단어 사용은 언어표현이 지향하는 바가 문맥상 사회적 성공, 지도자, 미래지향적이라면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지식 습득을 통한 사회 봉사와 배려에 있다면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보았다(김돌순 외, 2020: 87).

〈표 1〉 교가·교훈 분석기준

구분	분석기준	세부 지표	연구
교가 / 교훈	특정 성 지칭	남성/여성 지칭 단어, 성차별 요인 없음, 남성/여성 지칭 단어 모두 사용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20)
	성차별적/ 성편향적 단어	남성/여성 편향적 단어 사용, 성차별 요인 없음, 남성/여성 편향적 단어 모두 사용	
	사회적 역할	성취지향적/활동적/주도적 단어 및 문구, 관계지향적/소극적/수동적 단어 및 문구, 성차별 요인 없음, 사회적 역할 표현 모두 사용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한 표현이 있는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
성차별적 표현	성차별적 표현을 포함한 표현이 있는가?		
교가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여성다움 편견, 전통적 인재상, 특정 성 지칭표현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2022)
	성차별적 언어표현	남성/여성 편향적 단어 사용,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단어 사용	
교훈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한 표현이 있는가?	
	성차별적 언어표현	성차별적 표현을 포함한 표현이 있는가?	
↓			
경상북도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경상북도 양성평등 교가·교훈 수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예산적 지원 방안/공감대 확산 사업 수행 방안/검토 가이드라인 제안			

자료: 박은미 외(2022: 20-21) 재구성.

III.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753개 초·중·고·특수학교의 교가·교훈을 분석 대상 모집단으로 하여 전수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공립학교 중 교가가 있는 학교 753개교, 교훈이 있는 학교 716개교이다.

분석내용은 교가·교훈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포함

여부이다. 교훈은 해당 단어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언어표현에 해당되는지 분류하였다. 교가는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을 위해 남성/여성다움에 대한 편견, 전통적 인재상에 대한 표현, 특정 성을 지칭하는 표현을 포함하는지 분석하였고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남성/여성편향적 단어와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단어 포함 여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에 대한 의견 수집을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조사를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2022년 11월 4일(금)까지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선행연구자와 경상북도 관내 교사 총 10명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틀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크게 교가·교훈의 맥락분석, 내용분석, FGI 조사로 구분하였으며, 분석틀은 교가·교훈 분석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맥락분석은 공립학교 교가·교훈의 ① 성차별적 요소 키워드 검토, ② 분석틀에 따른 교가·교훈 검토, ③ 성차별적 요소 맥락분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내용분석은 맥락분석한 교가·교훈에 대해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및 설립연도별로 유형별 분석하였다.

첫째, 맥락분석 1단계에서는 수집된 교가·교훈이 성차별적 요소 키워드를 포함하는지 검토하였다. 키워드는 김둘순 외(2020)의 ‘성차별성 점검 체크리스트’와 인천광역시교육청(2020)의 성차별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는 성차별적 키워드가 반영된 교가·교훈을 분석틀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언어표현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는 분류된 교가·교훈을 성차별적 키워드가 포함된 교가의 가사가 맥락상 실제 성차별적 내용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학교유형(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녀공학 교가에서 사용된 ‘선비’는 남성 지칭 표현이므로 성별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선비’가 선비정신을 이어받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재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선조들의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어 성차별적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내용분석은 맥락분석 내용을 토대로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및 설립연도별 성차별적 요소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교급별 분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석하였고, 학교유형별 분석은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로

분석하였다. 설립연도별 분석은 학교 교가·교훈이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의 성차별적 요소 분석이 실시된 선행연구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김돌순 외,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셋째, 교가·교훈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관계자 및 전문가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내용은 첫째, 경상북도 교가·교훈 키워드 타당성 분석, 둘째, 교가·교훈에 대한 선행연구 경험, 셋째,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활용 방안이다.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가·교훈 분석 절차

〈표 2〉 교가·교훈 분석모형

구분	내용	정책방안
교훈	1. 성역할 고정관념 2. 성차별적 언어표현	<div>⇒</div> <div> 제도적 지원 예산적 지원 공감대 확산 사업 가이드라인 제안 </div>
교가	1. 성역할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여성다움 편견 - 전통적 인재상 표현 - 특정 성 지칭 표현 2. 성차별적 언어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 성취/관계지향적 단어 	

자료: 박은미 외(2022: 62) 재구성.

〈표 3〉 경북형 교가·교훈 체크리스트

구분	해당 표현 사례	체크
교가	순결, 지조, 화랑(새 화랑, 화랑의 후예 등), 원화, 용사, 백익의 후예, 효도, 충성, 건아, 역군, 형/형제, 언니들, 꽃(꽃동산, 꽃봉오리 등), 고운 눈, 순결, 지조, 날쌔고 끈기 있게 몸매를 길러, 진선미 찾아내며, 가슴에 안고, 늠름/개척, 슬기/사랑, 용감한, 곰게, 건아(들), 아들, 높은 뜻, 순결/정숙, 처녀들, 여성이 되자, 원화(들), 현숙한 여성, 딸들, 여인, 꽃봉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교훈		

주 : 김돌순 외(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북형 교가·교훈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성차별적 키워드 포함 유무 분석

IV. 분석결과

1. 학교별 교가·교훈 현황

경상북도의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470개, 중학교 188개, 고등학교 92개, 특수학교 3개로 총 753개이다. 본 연구는 750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학교 급별, 학교유형별, 설립연도별로 교가·교훈을 유형별 분류하였다. 특수학교 3개는 특수목적 설립학교이기 때문에 유형별 분류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을 학교급별로 나뉘보면 초등학교 470개교 중 교가가 있는 학교는 470개(100.00%), 교훈이 있는 학교는 433개(92.13%)이다. 중학교 188개교 중 교가·교훈이 있는 학교는 188개(100.00%)이며, 고등학교 92개교 중 교가·교훈이 있는 학교는 92개(100.00%)이다. 다음으로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교가·교훈이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는 153개(81.38%)이며 고등학교는 64개(69.57%)이다. 교가·교훈이 있는 남자중학교는 17개(9.04%), 남자고등학교는 16개(17.39%)이며, 여자중학교는 18개(9.57%), 여자고등학교는 12개(13.04%)이다.

설립연도별로 분류하면 1950년대 이전 설립학교 중 교가가 있는 경우는 380개(50.67%), 교훈은 352개(49.37%)이며 1951년~1969년 중 교가가 있는 경우는 134개(17.86%), 교훈은 132개(18.51%)이다. 또한 1970년~1989년 중 교가가 있는 경우는 89개(11.87%), 교훈은 87개(12.20%)이며, 1990년~1999년 중 교가가 있는 경우는 51개(6.80%), 교훈은 48개(6.73%)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설립학교 중 교가가 있는 경우는 96개(12.80%), 교훈은 94개(13.18%)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학교 3개 중 교가·교훈이 있는 학교는 총 3개(100.00%)이다. 이를 학교유형별로 분류하면 남녀공학 3개(100.00%)이며 설립연도별로 분류하면 1970년~1989년 2개(66.67%), 2000년대 이후 1개(33.33%)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753개 공립학교 중 교가가 있는 753개교, 교훈이 있는 716개교의 교가·교훈을 맥락분석하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학교의 교가·교훈에 대해 내용분석 및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 현황(단위: 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계
교가	470	188	92	3	753
교훈	433	188	92	3	716
전체 학교 수	470	188	92	3	753

2. 분석 결과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분석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차별적 요소 키워드를 포함한 각 학교 교가·교훈의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맥락분석 기준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가·교훈은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또는 학교 설립연도에 따라 유의미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둘순 외,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학교의 교가·교훈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및 설립연도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하였다.

1) 교가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 753개 초·중·고·특수학교 교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분석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여성다움에 대한 표현, 전통적 인재상 표현, 특정 성 지칭 표현으로,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남성/여성편향적 표현,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표현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수학교 3개교 교가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초·중·고등학교 교가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교가의 성인지적 분석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중 남성/여성다움에 대한 표현은 ‘순결, 정숙, 지조, 처녀

들, 향기, 여성이 되자, 성스럽게 피리니 등'이 사용되었다. 해당 표현들은 여성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순결과 지조를 지키는 처녀의 전통적 여성상을 연상시킨다.

둘째, 전통적 인재상 표현은 '화랑, 원화, 용사, 큰 인물, 간성(干城), 역사적 인물(성충, 세종님, 충무공, 퇴계선생, 김유신 장군님, 무열왕 김장군)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화랑은 남성 집단이며 원화는 여성 집단이다. 남녀공학과 남학교 교가에는 재학생이 본받을 인재상으로 화랑을 자주 사용하였고 여학교는 원화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신라 시대의 기반이 경상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가에 등장한 역사적 인물은 주로 남성적 인물이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하였다기보다 전통적 인재를 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인물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교가에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는 여성 인물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특정 성 지칭 표현은 '화랑, 원화, 건아, 역군, 아들딸, 형제, 꽃, 현숙한 여성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경상북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지칭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화랑과 원화가 주로 사용되었다. 화랑은 남녀공학과 남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원화는 여학교에서 여학생 지칭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남녀공학에서 남성 지칭 표현인 화랑이 사용된 경우 성별 대표성에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대체하거나 여성 지칭 표현을 교가에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성 지칭 표현 중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꽃'이다. '꽃'은 여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남녀공학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꽃은 성중립적 표현이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남녀공학에서는 성별 대표성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꽃이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경우 여성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김돌순 외(2020: 104, 134)는 '꽃'이 아름다움, 향기 등과 연관된 표현으로 여성에 대해 전통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꽃'은 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 '나비와 별'을 기다리는 수동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수동성, 연약함 및 아름다움을 상징하거나 강조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살펴보면 첫째, 남성/여성편향적 표현은 '처녀, 고운, 순결, 백의의 후예, 지조, 여인이 되자, 아름답고 참다운, 부지런한, 덕을 닦는 등'이 있다. 여학교에서 학생을 처녀로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을 순결, 정숙 등으로 묘

사하는 것은 전통적 여성상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여성의 편향적 이미지를 유발한다.

둘째,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표현은 ‘진선미, 한마음 한뜻, 어질고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자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여학교 교가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되었다. 여학교에서 ‘진선미 싣고, 한마음 한뜻, 어질고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자’처럼 학업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 역할을 관계지향적으로 표현한 경우 여학생들에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A시 초등학교 교가에는 새 화랑이 ‘참되고 늠름하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과 새 원화가 ‘착하고 슬기롭게 꿈을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의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다. 즉 남성을 지칭하는 새 화랑은 성취지향적 표현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새 원화는 관계지향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성품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표현이 3건 사용되었다. 중학교는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 ‘스승의 채찍 아래 길을 물어서, 스승의 채찍 아래 배우는 동산’이 사용되었고 고등학교는 여학교에서 ‘스승의 채찍 아래 길을 물어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2) 유형별 내용분석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분석결과 학교급별·학교유형별·설립연도별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학교급별 교가에는 남성 지칭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 교가 분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가에 나타난 남성 지칭 표현은 초등학교 19.15%, 중학교 20.74%, 고등학교 12.00%이다. 남성 지칭 표현 비율이 높은 중학교 교가에는 ‘건아’가 주로 사용되었다. 남녀공학에서 재학생 지칭 표현으로 남성 지칭 표현인 건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교에서도 남학생 지칭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아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를 뜻하는 표현으로 남학생이 씩씩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남녀공학에서는 성별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가는 남성적 전통적 인재상과 여성 지칭 표현이 타 학교급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가에서 나타난 남성적 전통적 인재상은 초등학교 8.94%, 중학교 4.26%, 고등학교 1.09%이다.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임에도 주로 남성을 지칭하는 역사적 집단인 ‘화랑(화랑의 후예, 화랑 어린이, 새 화랑 등)’의 표현이 등장하였고 ‘무열왕 김장군의 본을 받아’, ‘대한의 용사’, ‘세종님’, ‘이순신’ 등과 같은 남성을 연상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남성중심적 인재상

이 많이 포함되었다.

초등학교 교가에서는 ‘꽃(꽃송이, 꽃봉오리, 나라의 꽃 등)’과 같이 여성 지칭 표현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지칭 표현은 초등학교 11.49%, 중학교 7.98%, 고등학교 7.6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가에서는 여성편향적 표현 및 관계지향적 표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여성편향적 표현은 초등학교 1.06%, 중학교 4.79%, 고등학교 7.61%로 나타났다. 관계지향적 표현은 초등학교 2.13%, 중학교 4.26%, 고등학교 5.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유형별 교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여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여자중학교의 교가 중 여성 지칭 단어 사용은 44.44%(8개교/18개교), 여성편향적 단어가 사용된 학교는 50.00%(9개교/18개교)이며 여성다움에 대한 편견 및 여성적 인재상은 각각 22.22% 학교에서 나타났다(4개교/18개교). 이는 여자고등학교 교가에도 나타나는데 여성 지칭 단어 사용은 50.00%(6개교/12개교), 여성편향적 단어 사용은 58.33%(7개교/12개교), 여성다움에 대한 편견 및 관계지향적 문구 사용은 각각 33.33%이다(4개교/12개교). 한편,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남성적 인재상 및 남성적 성차별 언어표현을 사용한 교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중학교 교가에서 남성 지칭 단어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전체 남자중학교의 17.65%(3개교/17개교)에 불과하며 남자고등학교 교가에서도 남성 지칭 단어 비율이 25.00%(4개교/1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가에 남성 지칭 단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남녀공학 교가에는 남성 지칭 단어가 22.88%(35개교/153개교) 사용되었고, 고등학교는 10.94%(7개교/64개교)가 사용되었다.

여학교 교가에 사용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재학생을 ‘꽃(꽃봉오리, 겨레 꽃, 배꽃 등)’에 비유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또한 여학생을 ‘아름다운, 어질고도, 고운 등’의 형용사적 수식어를 활용하여 성차별성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순결’과 ‘정숙’처럼 가부장적, 소극적, 수동적인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남녀공학의 교가에 사용된 남성 지칭 단어는 ‘건아(건아들, 군센 건아들 등)’, ‘화랑(화랑의 후예, 화랑의 말굽 소리 등)’, ‘대한의 역군’, ‘용사’ 등이 대부분이며 이는 남녀공학에서 남성성을 강조하거나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녀공학에서 한쪽 성을 제외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남성/여성다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성역할 고정관

념을 유발하는 표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립연도별 교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이 있는 초등학교 교가를 설립연도별로 구분하면 1950년 이전 설립학교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전통적 인재상 가사가 포함된 1950년 이전 설립학교는 27개이며 전체 41개교 중 약 65.90%이다. 또한 남성 지칭 단어 사용 학교는 68.89%(62개교/90개교)이며, 여성 지칭 단어 사용 학교는 72.22%(39개교/54개교)이다.

중학교 교가에서 남성적 전통적 인재상 표현이 다수 확인된 설립연도는 1950~1969년(62.50%, 5개교/8개교)이며, 남성 지칭 단어 사용도 1950~1969년(35.90%, 14개교/39개교) 설립학교가 많았다. 한편 여성 지칭 단어 사용은 1970~1989년에 설립된 학교에서 빈번히 확인되었다(40.00%, 6개교/15개교).

고등학교 교가를 점검한 결과 1950년~1989년 설립학교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다. 여성다움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1950~1969년 설립학교 비율이 75.00%(3개교/4개교)로 가장 높았고, 남성 지칭 단어 사용은 1970~1989년 설립된 학교(54.55%, 6개교/11개교)이며, 여성 지칭 단어 사용은 1950~1969년 설립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57.14%, 4개교/7개교).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포함된 초등학교 교가 사례는 1950년 이전 설립된 학교에서 다수 나타났다. 남성편향적 단어를 포함한 학교 100.00%(2개교/2개교), 여성편향적 단어를 포함한 학교 60.00%(3개교/5개교), 관계지향적 문구를 포함한 학교 50.00%(5개교/10개교)가 모두 195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이다.

중학교 교가에서는 1990년 이전 설립학교에 다수 분포되었다. 특히, 여성 편향적 단어는 1950년대 이전, 1950~1969년, 1970~1989년 사이에 각각 3개교가 확인되었고, 이 중 1970~1989년에 설립된 학교 비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지향적 문구 포함 학교는 1970~1989년에 설립된 학교에서 두드러진다(8.11%, 3개교/37개교). 한편, 성취지향적 문구 포함 학교는 2000년 이후 설립된 학교에서 확인되었다(3.23%, 1개교/31개교).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가는 1960~1969년 설립학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편향적 단어 사용은 71.43%(5개교/7개교)로, 관계지향적 문구 사용은 60.00%(3개교/5개교)로 나타났다.

2) 교훈

경상북도 공립 716개의 초·중·고·특수학교 교훈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없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교훈의 성인지적 분석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여학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등장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은 ‘슬기, 성실, 예절, 정숙, 상냥, 협동 등’이 사용되었다. 김둘순 외(2020: 120)는 참되고 슬기로운 여성이 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여성이 지녀야 할 태도 및 역할을 기대하는 표현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중학교의 경우 모두 여학교에서 ‘경애, 봉사, 슬기, 정숙, 아름답게, 참된 등’의 관계지향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여학교에서는 ‘성실, 겸손, 정숙, 예절, 슬기 등’의 관계지향적 표현이 남학교에서는 높은 뜻과 같은 성취지향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김재인 외(2000: 344-345)는 여학교 교훈에서 성실, 정결, 겸손, 덕성 및 경로효친 등 여성의 덕목을 포함한 성정형화된 교훈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여학교 교훈에 내재된 교육 목적이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여성화’ 교육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훈과 교육목표에 포함된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는 여학생이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주어진 모든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데 제약과 장애가 될 수 있다.

(2) 유형별 내용분석

경상북도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훈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여학교와 남학교에서 나타났다. 첫째, 학교급별·학교유형별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살펴보면 여성/여아 지칭 단어를 사용한 여자중학교는 55.56%(10개교/18개교), 여자고등학교는 83.33%(10개교/12개교)이며 여성적 성차별 교훈은 여자중학교 50.00%(9개교/18개교), 여자고등학교 41.67%(5개교/12개교)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남성적 인재상 및 남성적 성차별 언어표현을 사용한 교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설립연도별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여아 지칭)이 나타난 중학교 교훈은 195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서 50.00%(5개교/10개교)로 나타났다. 성차별적인 교훈(여성적 표현)이 포함된 학교는 1969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가 66.67%(6개교/9개교)이다.

고등학교 교훈에서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1950년 이전 설립된 학교와 1950~1969년 설립학교에 편중되었다. 여성/여아 지칭 표현을 포함한 교훈은 50.00%(5개교/10개교), 남성적 성차별 표현이 사용된 교훈은 100.00%(2개교/2개교), 여성적 성차별 표현이 사용된 60.00%는 1950년 이전 설립학교이다(3개교/5개교). 또한 고등학교 교훈에서 나타난 여성적 표현은 5.43%(5개교/92개교), 남성적 표현은 2.17%(2개교/92개교)이며 여성/여아 지칭 표현은 10.87%(10개교/92개교)로 나타났다.

3) 분석 종합

이상의 교가·교훈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여성다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은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교가에서 ‘순결, 처녀들, 정숙 등’과 같은 여성다움에 대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둘째, 특정 성 지칭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은 남녀공학 및 남학교 교가에서 ‘화랑, 건아, 형제 등’과 같은 남성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경우, 여학교 교가에서 ‘꽃, 여성 등’의 여성적 이미지 강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남성/여성편향적 단어 사용에 대한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고운 꿈 가꾸며, 한마음 한뜻 이뤄 등’처럼 여자중·고등학교 교가에서 관계지향적 표현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학교 교훈에서는 현모양처 및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여학생이 지녀야 할 태도와 역할 기대표현 및 관계지향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경상북도 공립학교의 교가·교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학교에서 ‘순결, 처녀들, 정숙, 꽃 등’의 전통적 여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은 시대상에 걸맞지 않으므로 이 가사가 포함된 문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공학에서 ‘건아, 화랑 등’의 남성 지칭 표현이 사용된 경우 한쪽 성을 지칭하는 표현 대신 ‘학생’처럼 재학생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학교 교가·교훈에 사용된 여성 역할 기대표현 및 관계지향적 표현은 여학생들의 배움이 사회에서의 봉사와 배려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학교 교가에 관계지향적 표현과 함께 성취지향적·능동적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 여성 인재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FGI 조사

본 연구는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집을 위해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2022년 11월 4일(금)까지 서면 조사하였다. 조사는 맥락분석의 2단계 ‘분석틀 기준 교가·교훈 분석’ 절차 후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연구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자 5인과 경상북도의 교사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5〉 FGI 대상자 특성

구분	연번	직장	직책	성별	연령	비고
선행 연구자	1	연구기관	연구위원	여	만57세	
	2	연구기관	연구위원	여	만52세	
	3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여	만42세	
	4	공공기관	센터장	여	만58세	
	5	대학교	강사	여	만55세	
경북 관내 교사	6	초등학교	교감	여	만54세	
	7	중학교	교장	남	만59세	친일잔재 청산사업 교가 변경 참여자
	8	중학교	교감	여	만56세	현장전문가
	9	중학교	교사	여	만56세	양성평등 교육 강사
	10	고등학교	교사	남	만61세	양성평등 교육 이수

자료: 박은미 외(2022: 93)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경상북도 교가·교훈 키워드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타당성 분석, 둘째, 선행연구 경험에 따른 연구자로서 아쉬웠던 점, 셋째, 연구활용 방안이다.

〈표 6〉 FGI 조사 내용

연번	구분	조사 내용
1	교가·교훈 키워드 타당성	- 경북 교가·교훈 1차 맥락조사의 키워드에 대한 의견 - 경북 교가·교훈 1차 맥락조사에서의 주의 사항
2	선행연구 경험	- 교가·교훈 성별영향평가 추진 경험
3	연구 활용 방안	- 교가·교훈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 성인지 관점에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

자료: 박은미 외(2022: 94)

첫째, 교가·교훈 키워드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 타당성 분석에서는 성차별적 요소로 제시된 키워드가 연구목적에 타당한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시 논쟁이 될 만한 키워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키워드에서 몇몇 단어의 성중립성 및 성차별적 요소 구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성차별적 단어 중 사전적 의미가 성중립적인데 성차별적 언어표현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립적 표현에 대한 무리한 해석보다 명백히 성차별성을 유발하는 키워드에만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단어/표현 사용이 성차별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 키워드가 교가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가 내 역사적 인물이 남성 인물, 문화 정서 등을 반영한 내용은 성차별적 표현으로 해석하기보다 역사적 여성 인물도 함께 제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경험은 교가·교훈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연구자들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 경험과 연구자로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내용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가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해당 학교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추진하였다. 이처럼 경상북도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도 지역 문화와 정서 고려를 위해 지역관계자의 논의를 통한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 시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은 성차별성에 대해 판단하는 범위 설정이었다. ... 우리 사회 일반 국민과 학교 관계자의 성평등 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누가 봐도 문제라고 인식할 만큼 심각한 표현만 성차별적 언어표현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즉 경북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현까지 성차별로 판단하여 문제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참여자 1).

셋째, 연구 활용방안에서는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활용방안 제안과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교훈을 성인지 관점에서 유용성 확보하기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용방안에서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 주체들이 교가와 교훈의 성차별적 문제를 직접 성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북교육청, 학부모회, 학생, 지역 언론 등 초·중·고등학교 관계자와 함께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북교육청 주최로 ‘우리 학교 교가 및 교훈 되돌아보기 및 양성평등하게 새로쓰기(가칭)’ 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참여자 1).

학교 구성원들이 교가와 교훈에 포함된 성차별적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문예부는 글쓰기 특별활동시간에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교가·교훈 다시 쓰기를 실시할 수 있다. 음악반에서는 교가 다시 부르기 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연극반은 양성평등 교가·교훈 만들기 역할극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술수업에서는 양성평등 교훈 캘리그라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과물은 학교 축제에서 양성평등 교가 합창 및 양성평등 교가·교훈 작품 전시를 통해 전교생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 기간에는 어머니회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여 양성평등 교가·교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참여자 10).

초등학교는 학교 행사에서 체육대회와 축제가 진행된다. … 축제에서 인형극을 통한 양성평등 교가·교훈 다시 보기를 실시할 수 있고 교가·교훈 새로쓰기 부스 설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가·교훈 돌아보기 간담회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6).

또한 연구자들이 교가·교훈의 수정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시하는 것보다 학교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협력적 관계 및 주체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주체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타 기관 조례나 기관장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업무를 강조한다면 각 학교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자 3).

교육청과의 협력이 핵심적이다. 교육청이 각 학교로 교가·교훈의 결과와 개선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언론에 대표 개선사례 홍보를 실시한다면 연구의 근본 취지를 살릴 것이다(참여자 4).

경상북도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담당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참여자 6).

V. 결론 및 제언

교가·교훈은 학교 설립 시기에 제정되기 때문에 설립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인재상 및 교육관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학교 753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학교급별 교가·교훈은 모든 학교급별 교가에서 남성 지칭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교가·교훈은 여학교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교에서는 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교가가 상당히 많고 ‘아름다운, 어질고도, 고운 등’의 형용사적 수식어 사용을 통한 성차별성 강화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순결, 정숙, 성실 등’과 같이 전통적 현모양처를 묘사하는 여성상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다움의 표현이 교가·교훈에 사용되었다. 한편 남녀공학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가에는 남성 지칭 단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건아, 역군, 화랑, 용사 등’의 한쪽 성을 배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별 대표성에 불균형을 유발하였다. 설립연도별 교가·교훈은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2000년 이전 설립된 학교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둘순 외(2020)와 인천광역시교육청(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가에는 ‘화랑(새 화랑, 화랑의 후예 등), 원화(새 원화) 등’의 용어가 성차별적 표현으로 다수 등장한 것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차별점을 가진다. 이는 ‘화랑’과 ‘원화’가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라 시대의 인재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북도는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이 교가·교훈에 등장하였다.

교가·교훈은 학생 생활 전반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가·교훈 속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교가·교훈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찾아 양성평등한 교가·교훈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둘순 외(2020)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가·교훈 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의 성

평등 조례 개정 및 교육감 역할을 통한 공론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경상북도에서도 공립학교 교가·교훈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가·교훈 개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교가·교훈 개선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산발적 노력보다는 교육청 주관의 일괄적 사업 운영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교가·교훈 만들기’ 시범학교 공모를 통해 경상북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가·교훈 개선 사업을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가·교훈 개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각 학교에서의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교가·교훈 개정에는 교육청의 제도적·예산 지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교가·교훈 개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가·교훈 개정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 교직원, 동문회,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과의 합의를 통해 수정하도록 교육청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의 합의를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개정’ 우수학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은 먼저 교가·교훈 다시 쓰기 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가·교훈 다시 쓰기 사업 운영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및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의견 공유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을 제안한다.

다음은 교가·교훈 공모전 개최이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여성상 강조 표현, 시대착오적 표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학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합의된 내용을 재학생, 교직원, 동문회 및 학부모 등 범위를 확대한 공모전을 통해 교가·교훈 바꿔쓰기 사업을 실시한다. 일례로 양성평등 교가·교훈 UCC 공모전에서는 학생들이 양성평등하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상을 포함한 교가·교훈 부르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주간/한글날 교가·교훈 쓰기 대회는 성인지 관점을 가진 본교 교사 및 외부 전문가 위촉 심사를 통한 시상식을 실시하여 학교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간과 연계한 교가·교훈 다시 쓰기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각 학교별 문예부, 음악반, 미술반 등의 동아리 특성을 활용한 사업 운영 방법이다. 예를 들어 문예부는 ‘교가 다시 쓰기’, 음악반은 ‘교가 다시 부르기’, 미술반은 ‘교훈 캘리그래피 제작하기’ 등의 수업을 통해 교가·교훈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결과물은 각 학교별 축제, 행사에서 전시·공연하여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주간 교가·교훈 토크콘서트를 운영한다. 토크콘서트 운영을 통해 교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동창회 등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크콘서트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교가·교훈 새로 쓰기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이 사업은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장·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가·교훈 성차별적 요소와 인권 점검 가이드라인 제안이다. 학교 교가·교훈 다시쓰기 사업에서 제안된 성차별적 요소와 인권 개선사항을 수집하여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안된 개선사항을 토대로 학교 교가·교훈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립학교의 교가·교훈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교가·교훈에 반영된 경상북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전통적 요소들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관점을 반영한 경상북도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혜인·한용진(2013). 중학교 교가 가사의 교육적 가치 탐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제26권 제1호, 129-148.
- 김동일(1999). *성의 사회학(개정판)*. 서울: 문음사.
- 김둘순·김은경·남궁윤영·이슬·이지연·이재연(2020).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 영향평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복환(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성역할고정관념과 진로대안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역할.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 김재인·양애경·허현란·유현옥(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네이버 지식백과(2023). “사립학교”,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7206&cid=40942&categoryId=31723>에서 2023.03.26. 인출.
- 박동근(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제4권 제1호, 57-88.
- 박은미·김은혜·박효영·박순란·한경현·김성령·유은경·윤경희·이선자·이승민·최선미(2022). *경상북도 교가·교훈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신문(2022.01.07.). “강원지역 학교 57곳 교가교훈 차별요소 개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7500075>에서 2022.10.26 인출.
- 세종포스트(2021.04.15.). “세종시교육청, 교훈으로 ‘양성평등 학교 문화’ 살펴봐.” <https://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50>에서 2022.10.26 인출.
- 승윤희(2013).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가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3권 제6호, 691-708.
- 안상수·백영주·양애경·강혜란·윤정주(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윤병화(2011). 대전 초등학교 교가 가사 연구. *考古와 民俗*. 제14권. 95-137.
- 이진석(2011).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교훈 내용 분석.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179-194.
- 이현주(2012).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2호. 391-412.
- 이희승(1986).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서울: 민중서림.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교가·교훈 새로 쓰기 사업 백서*.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조태린(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지봉환(2021). 초·중등학교 교육목표와 교훈을 통해 본 ‘효’ 의식. *청소년과 효문화*. 제37권. 227-248.
- 한정희·허무열·박진희(2021).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제12호. 125-143.
- Beuf, A.(1974). Doctor, lawyer, household drudge. *Journal of Communicatoin*, 24, 142-145.

Abstract

Gender-perspective Study on School songs and Precepts among the Public Schools in Gyeongsangbuk-do

EunHye, Kim*·EunMi, Park**·SoonRan, Park***·HyoYoung, Park****

This study aims to analyze gender-discriminatory factors in school songs and precepts and improve them in the viewpoint of gender equality.

For this purpose, we delved into all public schools' school songs and precepts in Gyeongsangbuk-do. The context and content of the school songs and precepts were analyzed, with focus o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gender-discriminatory expressions. Then they were analyzed by level and type of school 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by year of school found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survey found male-designated expressions such as 'geona(virile son)' and 'hwarang(male soldeir in Silla Dynasty)' in all levels of schools. Secondly, gender role stereotypes and gender-discriminatory expressions were found in the school songs in female schools. Lastly, gender role stereotypes and gender-discriminatory expressions appeared in greater frequency in schools established before 2000, compared with those established after 2000.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pose fou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gender-discriminatory elements in the school songs and precepts. Firstly, the Education Office of Gyeongsangbuk-do needs to revise its Gender Equality Ordinance as a way of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 Office of Gyeongsangbuk-do to provide budget for correcting the gender-discriminatory factors in school songs and precepts. It requires a comprehensive program supported by the Education Office to improve the gender-discriminatory content in the school songs and precepts in this province. Thirdly, it is needed to hold

* First Author: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Co-Author: Senior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Co-Author: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Co-Author: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meetings, talk concerts, and exhibits so as to share common grounds of school songs and precept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among the students, graduates, school employees, and parent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draw up guidelines for eliminating gender-discriminatory and human rights-violating factors in school songs and precep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opinions of students, who are the main members of schools, in the improvement of school songs and precepts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Through follow-up research, we intend to propose ways to eliminate gender discrimination elements in Gyeongsangbuk-do public school songs and precept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students.

Keywords : school song, precept, gender equality